

# 시중은행, 인뱅지분 처분 잇따라... 핵심사업에 자본 재배치

우리은행 케이뱅크 지분 일부 매각 지분을 9.22%로... 658억 이익 거둬 국민은행 카뱅 지분 5% 미만 유지 주식 보유목적 '단순투자'로 전환 하나은행 토스 회수시점 잡지못해



(왼쪽부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CI. /각사

시중은행들이 보유 중인 인터넷은행 지분을 잇따라 처분하고 있다. 자체 디지털 역량이 고도화되면서 출범 초기 기대했던 혁신 노하우 공유 등 시너지 효과는 약화된 반면, 투자금 회수(엑시트)를 통한 자본 효율성 제고 필요성은 커졌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 지분 4.88%,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9.22%, 하나은행은 토스뱅크 8.9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파는 이유는 디지털 경쟁력 격차가 예전만큼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인터넷은행의 플랫폼 운영 방식과 비대면 서비스 설계 역량을 흡수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시중은행들도 모바일 앱 고도화, 인공지능 상담, 비대면 대출 심사, 데이터 기반 마케팅 체계 구축 등에 속도를 내면서 인터넷은행으로부터 별도의 혁신 노하우를 이전받아야 할 유인은 줄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지분 회수를 단순한 투자금 회수가 아닌 전략 변화로 해석하고 있다. 인터넷은행들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방향성을 학습하던 초기단계

에서 벗어나 이제는 각 은행들이 자체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지분투자를 줄이고 핵심 사업에 자본을 재배치하는 흐름이란 분석이다.

이러한 흐름은 실제 지분 매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상장 당일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해 지분율을 11.08%에서 9.22%로 낮췄다. 753만6442주를 주당 8738원에 장내 매도하며 약 658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시중은행들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정리하는 배경에는 자본 효율성 제고 필요도 자리 잡고 있다.

바젤Ⅲ 규제에 따르면 은행이 보유한

주식 지분에는 250%의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분을 줄일 경우 위험가중자산(RWA)을 낮추고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은행 역시 이번 매각을 통해 약 1645억원 규모의 RWA를 줄인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은행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의 카카오뱅크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 4.88%로, 5% 미만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인 매각이 가능한 구조다. 국민은행은 해당 지분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전환했다.

국민은행은 설립 초기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해 약 10% 수준의 지분을 확보했지만, 이후 일부 지분을 처분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평균 매입단가 대비 높은 가격에 매각하면서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비상장사인 토스뱅크 지분을 보

유한 하나은행은 아직 뚜렷한 회수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토스뱅크가 상장 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당분간은 지분법 이익 확보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간 관계가 출자 중심에서 사업 협력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인터넷은행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빠르게 흡수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현재는 각 은행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자본 투입보다 선택적 제휴가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더 이상 '벤치마킹 대상'이 아니라 경쟁과 협력의 대상이 된 상황"이라며 "향후에는 지분 관계보다는 데이터·플랫폼 기반의 제휴 중심으로 협력 방식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나우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 “초·중·고 안심통학... 도림·안양천 ‘천세권’”

### 부동산 현장 르포

#### 영등포 '더샵 프리엘라' 견본주택

최근 찾아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더샵 프리엘라' 견본주택. 사전예약제로 운영해 시간당 최대 70팀까지 방문객을 받았다.

더샵 프리엘라는 포스코이앤씨가 '문래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다. 영등포구 문래동 5가 일원 지하 3층~지상 최고 21층, 6개 동, 총 324가구의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4~84㎡ 138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타입별로는 ▲44㎡ 14가구 ▲59㎡ 37가구 ▲74㎡ 43가구 ▲84㎡ 44가구로,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 2호선 문래역과 5호선 양평역을 통해 여의도·광화문·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하기에 편리한 입지다. 영문초, 신도림고 등 초·중·고교가 가까워 안심 통학이 가능하며 신정교 하나만 건너면 바로 목동 학원가에 닿는다. 도림천과 안양천을 끼고 있어 '천세권'도 누릴 수 있다.

#### ◆ 다양한 옵션... 구조 변화

견본주택에는 전용 84㎡A 타입의 유니트 하나가 마련됐다. 4베이 판상형 구조로,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주부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최신 옵션을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현관에 들어서면 침실 2개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자녀방은 발코니 확장을 통한 공간 활용을 강조했고, 불박이장은 옵션으로 구성됐다. 두 번째 침실을 지나면 거실과 주방이 나오는데 시야가 열리며 공간이 확 트인다. 거실은 우물형 천장을 적용해 간접조명이 테두리를 따라 들어가고, 중앙은 한 단계 들어올린 구조다. 기본 천정고는 2.35m로 설계됐지만 우물 천장으로 인해 침실보다 거실의 층고가 더 높아보인다.



'더샵 프리엘라' 견본주택 방문객이 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성채리 인턴기자

‘우물천장’ 거실, 층고 높아보여 74㎡·84㎡ 홀수층·짝수층 따라 발코니 유·무, 위치 다르게 설계 문래동 일대 1300여 가구 규모 ‘더샵 브랜드타운’ 조성 기대감

옵션을 선택하면 주방 공간이 크게 달라지는 점도 특징이다. ‘프리미엄 키친’을 적용하면 아일랜드 식탁이 확장되고 냉장고 위치도 바뀐다.

가장 특화된 공간은 드레스룸이다. 안방 드레스룸은 양쪽 벽면에 옷을 보관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확보돼 있다. 조명형 벽판넬 시스템가구는 쇼룸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발코니 설계에도 변화를 줬다. 74㎡와 84㎡는 홀수층과 짝수층에 따라 발코니 유무나 위치가 달라진다. 이 때문에 같은 타입이라도 방의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

#### ◆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입지”

견본주택 방문객들은 입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문래동에서 아이 2명(초등학교 3학년, 6세)을 키우는 30대 A씨는 “초·중·고가 모두 가까워 아이 키우기에 괜찮은 입지”라며 “전용 84㎡를 선호하지만 청약 가점이 부족한 것 같아 어떤 평형을 선택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50대 부부도 입지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이들은 “영등포

구에 원래 관심이 많아서 신축 단지를 찾아보던 중 새로 분양을 한다길래 와 봤다”며 “유니트를 둘러보니 드레스룸이 넓고 방도 커보여서 괜찮은 것 같다”고 했다.

문래동은 일대 정비사업과 연계된 변화가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포스코이앤씨가 문래현대2차, 문래현대5차, 대원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약 1300여 가구 규모의 ‘더샵 브랜드타운’을 만든다고 밝혀 지역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문래동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에서 신규 공급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청약에 넣어볼 만하다는 반응이지만 가격과 대출 규제로 접근이 쉽지는 않다”면서도 “직주근접이나 학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곳이라서 미래 가치를 기대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더샵 프리엘라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별로는 ▲44㎡ 8억4200만~8억8500만원 ▲59㎡ 11억8300만~13억원 ▲74㎡ 13억9400만~15억7000만원 ▲84㎡ 16억6000만~17억9800만원 수준이다.

더샵 프리엘라 청약은 오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해당지역, 25일 기타지역 1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오는 4월 1일 발표하며 계약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 K-컬처에 5년간 정책금융 28조 투입

수은, 콘텐츠 제작부터 전 과정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K-컬처’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향후 5년간 28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은은 ‘K-드라마’·‘K-팝’ 같은 콘텐츠가 인기를 끌며 뷰티·푸드·패션 수출까지 함께 늘어나는 효과에 주목했다. 이에 콘텐츠 제작부터 플랫폼 유통, 소비재 판매, 해외 현지 법인·물류까지 K-컬처 산업의 전 과정을 빠짐없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수은은 ▲최대 1.5%포인트(p) 특별 우대금리 도입 ▲K-컬처 블라인드 펀드 조성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신흥시장 진출 지원 등 네 가지를 지원한다.

우선 K-컬처 산업에 최대 1.2%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대기업과 중소·중견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상생금융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는 0.3%p를 추가한 최대 1.5%p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유통 플랫폼을 K-컬처 해외 확산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 문턱도



/한국수출입은행

대폭 낮춘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수출실적을 기반으로 수출자금을 지원하되, 번거로운 수출실적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플랫폼 대기업에 중소기업 수출제품 구매자금을 지원해 금융의 혜택이 중소기업으로 막힘없이 흐르는 ‘상생의 선순환 생태계’를 도모한다.

대출 일변도에서 벗어나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 초기 단계 기업의 성장 자금 확보 등을 돕기 위한 ‘K-컬처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세계 시장을 겨냥한 ‘프로젝트 펀드’ 투자도 더 확대할 계획이다. /나우리 기자

##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25일 주총 거쳐 이사 3인 구성

KB국민은행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위원회 신설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소비자보호를 은행 경영 전반의 핵심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사회 내 전문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며,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포함한 총 3인의 이사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반기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해 소비자보호 관련 경영 전략과 정책을 직접 심의하고 의결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운영 기본방침 수립 ▲성과보상체계(KPI)에 대한 소비자보호 관련 점의 평가 ▲금융감독원 실태평가 및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관리 등을 통해 이사회 차원의 소비자보호 체계 고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